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강보선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 * 이 논문은 제275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3. 6. 1.)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2013년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I. 들어가며
- II.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특성
- III.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 IV.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방법
- V. 나오며

I. 들어가며

2013년 5월 현재 북한이탈주민¹의 수는 25,000여 명에 이른다(통일부 통계 참조).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속도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계속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² 점점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외에도 ‘탈북자’, ‘새터민’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물 중에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았는데 용어의 불일치가 주는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물에서 사용된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바꾸어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2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처음 1만 명이 되기까지 59년이 걸렸으나 다시 1만 명이 늘어나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남북의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일례로 2006년 이후 매년 2000명 이상 입국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주요 탈북 경로의 경계가 강화됨으로써 2012년에는 1,500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하도록 돋는 것은 통일 시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남북의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다(문금현 외, 2005 참조). 남북의 발음과 억양³, 어휘, 화행⁴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특히 남북의 어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단절 및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다(문금현 외, 2005; 문금현 외, 2006; 김현식, 2007; 림일, 2009; 신명선 외, 2010 참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남한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과 선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해야 할 남한 어휘의 유형은 무엇이고 각 유형에 속하는 어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어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특성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과 선정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 3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발음과 억양, 특히 억양이 남한과 다른 것 때문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남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다(조정아 · 정진경, 2006 참조).
- 4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면서 거절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과 표현과 감사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며 칭찬을 주고받는 것도 어색해한다(문금현 외, 2006).

는 어휘 교육의 목표, 어휘 교육의 성격, 어휘 교육의 대상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어휘 교육의 목표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일반적 목표는 어휘 능력의 신장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은 일반적인 목표와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어휘를 학습하는 목적은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사람들과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남한 사람이 표현한 말과 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남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과 글로써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목표는 남한에서 정확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가 교육용 어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어휘 교육의 성격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은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다(신명선 · 권순희, 2011).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모국어가 한국어라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어 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성장한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적, 사회 ·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학습하거나 보충적으로 학습해야 할 어휘 지식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적 성격도 일정 부분 지니고 있다.

3. 어휘 교육의 대상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은 당연히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어휘 교육의 대상이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우 이질적인 구성원들의 집합이다. 이들은 성, 연령, 출신 지역, 학력, 직업, 남한 정착 기간 등에 따라 남한 어휘에 대한 지식 정도가 다르며 어휘 교육의 필요성도 다르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어휘 교육을 하는 것은 어휘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과 성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은 그 내용이 달라야 하며, 남한에 갓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과 남한에 정착한 지 오래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 또한 그 내용이 같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어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신명선 외(2010), 권순희 외(2011)에서 남한 정착 2년 미만의 성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어휘 학습 교재를 개발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⁵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유형에 따라 교육용 어휘가 달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특정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용 어휘가 아니라 전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남한 어휘를 교육용 어휘로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교육용 어휘의 범위가 매우 넓다. 전체 교육용 어휘 목록이 선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별 교육용 어휘 목록이 재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신명선 외(2010), 권순희 외(2011)에서 남한 정착 2년 미만의 성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어휘 적응 문제를 가장 많이 겪고, 청소년보다는 성인이 어휘 적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II.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는 기본적으로 남북에서의 쓰임 차이를 반영하는 어휘이다. 남북에서 공통적으로 이해되고 표현되는 어휘는 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남북에서의 쓰임이 다른 어휘가 일차적으로 교육용 어휘의 목록에 포함된다.⁶ 남북에서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은 동일한 단어가 남북에서의 형태(form), 의미(meaning), 사용(use) 중 일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Nation, 2001 참조).⁷ 또한 북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남한의 특수한 어휘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교육용 어휘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은 남북에서 형태가 다른 어휘,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어휘, 남북에서 사용이 다른 어휘,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⁸

6 남북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어휘가 교육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자주 사용한 어휘가 남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어휘를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남한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자신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한된 교육 시간을 고려하면 교육의 대상은 주로 남북의 차이가 존재하는 어휘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네이션(Nation, 2001)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단어의 형태, 의미, 사용에 관한 지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어의 형태, 의미, 사용이 단어와 관련된 핵심 요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어 간의 비교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8 여기서의 '어휘'는 '어휘소들의 집합'으로서 '개별 단어'와 '관용 표현'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김광해, 1993 참조). 따라서 각 유형의 어휘에는 개별 단어와 관용 표현(연어, 속어, 속담)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각 유형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로 개별 단어 차원의 예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서는 개별 단어뿐만 아니라 관용 표현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휘'는 집합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단어'와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본고에서는 '단어'와 '어휘'를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는 문맥에 좀 더 자연스러운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1. 남북에서 형태가 다른 어휘

남북에서 의미와 사용은 동일하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들이 존재한다. 이를 단어는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그 개념과 사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한 단어의 형태만 새롭게 학습하면 된다. 형태가 다른 어휘 중에는 “여자(녀자), 노인(로인), 시냇물(시내물), 토마토(도마도), 마라톤(마라손), 스케이트(스케트), 달러(딸라), 탱크(땅크), 라디오(라지오), 리본(리봉), 아파트(아빠트), 킬로그램(키로그램), 텔레비전(텔레비죤), 버스(빠스), 날짜(날자), 빛깔(빛갈), 일꾼(일군) 등”과 같이 형태가 일부 다른 어휘와 “도시락(과밥), 코너킥(구석차기), 거위(게사니), 에어컨(랭풍기), 사인(수표), 콘센트(접속구) 등”과 같이 형태가 많이 다른 어휘가 섞여 있다(괄호 안은 북한어, 이하 동일).⁹

남북에서 형태가 다른 어휘들이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은 남북의 독자적인 순화 사업과 표기법의 차이 때문이다.¹⁰ 특히 북한은 말다듬기 운동을 통해 수많은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왔으며,¹¹ 어려운 한자어도 쉬운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에서 형태가 다른 어휘 중 상당수는 외래어 또는 외국어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어휘 적응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²

- 9 형태가 일부 다른 어휘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어휘를 처음 보더라도 곧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매우 적으나 형태가 많이 다른 어휘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어휘를 처음 보고 곧바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예로 든 단어들은 신명선 외(2010), 강보선(2011), 하나원(2011)에서 일부 가져왔다.
- 10 표기법 중에는 두음법칙, 사이시옷 표기,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등이 남북에서의 어휘 형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표기법의 원리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남한의 어휘 표기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11 물론 모든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꾼 것은 아니다. 외래어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은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과학 기술 용어는 외래어를 그냥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조오현 외, 2002).
- 12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의 주요 외래어와 외국어를 교육할 때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할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동일한 단어가 남북에서 형태가 일부 다르거나 전혀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형태가 많이 다른 어휘 중심으로 남한 어휘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2.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어휘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어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동일한 어휘를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에서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불필요한 의사소통 갈등을 사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단어가 남북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남북 사전에서의 뜻풀이가 다르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Leech(1981: 23)에 따르면 의미는 개념적 의미, 연상적 의미(내포적 의미,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반사적 의미, 연어적 의미), 주제적 의미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의 의미만 달라도 남북에서의 의미가 다른 어휘로 분류할 수 있다. 만약에 하나의 단어가 남북에서 개념 의미·연상 의미·주제 의미가 동일하며 모든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하다면 이는 남북에서의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인 반면, 제한된 문맥에서만 개념 의미·연상 의미·주제 의미가 동일하고 치환이 가능한 경

것이 있다. 남한에서도 외래어와 외국어를 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남한의 언어가 잡탕말이 되었다며 남한 어휘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잘 보여 준다. — 2005년 12월 중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는 한라산의 “CJ 나인브릿지”라는 골프장을 방문하면서 “식당 이름이 온통 영어여서 제 나라 식당에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언급을 했다. 남측 인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고 변론하자 그는 “자기 나라 인민이 먼저이지 어떻게 외국인이 먼저인가”하며 반문했다고 한다(2006년 12월 15일자 연합뉴스 기사).

우에는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임지룡, 1992 참조). 이 중 ‘주제적 의미’는 문 중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의미이지 단어의 의미의 일종으로 보기 는 힘들다는 지적(구니히로, 1987: 86~87; 홍사만, 2007: 52에서 재인용)을 받 아들인다면 ‘개념적 의미’ 또는 ‘연상적 의미’ 중 일부가 다를 때 그 단어는 남북에서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 단어라 할 수 있다.¹³

만약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단어가 남북에서 개념적 의미 또는 연상적 의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남한 사람과 의도하지 않은 소통의 단절 또는 오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에서는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남북에서 사용이 다른 어휘

어휘 중에는 형태와 의미는 동일하지만 사용이 다른 단어들이 존재한다. 남북에서 사용이 다른 어휘도 의미가 다른 어휘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사용’은 다시 ‘사용 범위’와 ‘사용 빈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사용 범위가 다른 어휘

남북에서 의미와 형태가 동일한 어휘 중에는 그 사용 범위가 다른 어휘가 존재한다.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있으며, 반대로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더 좁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의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의 예로, ‘머리’가 있다. ‘머리’의 경우, 북한에서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사람과 동물

13 『표준국어대사전』의 집필 기준에서도 동의어를 ‘개념적 의미, 연상적 의미가 같고 모든 문맥에서 교체 가능한 말’이라고 정의하고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차이가 드러나면 비슷한 말로 처리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에게 두루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돼지 머리 국밥’, ‘소머리 곰탕’처럼 ‘동물’에게 ‘머리’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고 한다(강보선, 2012). 북한에서 ‘머리’는 사람에게만 쓰고 동물의 ‘머리’는 철저히 ‘대가리’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남한에서의 사용 범위가 더 좁은 어휘의 예로는 ‘소행(所行)’이 있다. 다음은 ‘소행’이 사용된 북한 소설 중 일부이다(밑줄은 연구자).¹⁴

- 이 아랫다운 처녀의 소행 앞에서 어머니는 눈앞이 흐려진 채 언제까지나 고개만 끄덕였다.
- 그 체신분소아바이의 소행도 감동적이고 또한 그 청년의 마음도 기특하여 나는 자전거를 탈줄 모르지만 내색하지 않고 넘겨받았지요.
- 동무의 그 무책임한 소행때문에 갈비뼈 한대가 절골되고 이마에는 끔찍한 상처를 입었단말이요!
- 이런 더위 때 참외 밭을 보고 좋아하며 달려드는 것은 꼭 나쁜 사람들의 소행만도 아니다.
- 하나같이 집단체조에 참가한 학생들의 들끓는 열의와 아름다운 소행들을 찬양하고 있었다.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행’은 북한에서 부정적인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두루 사용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소행’을 사용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소행’과 ‘무책임한 소행’이 모두 자연스러운 반면 남한에서는 ‘아름다운 소행’은 부자연스럽다.

14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구축한 북한 소설 말뭉치에서 ‘소행’을 검색한 결과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2) 사용 빈도가 다른 어휘

어휘 중에는 남북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다른 어휘가 존재한다. 예컨대, ‘끌물’, ‘싸다’는 남한에서는 많이 사용되나 북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에, ‘끌물’, ‘싸다’의 동의어인 ‘막물’, ‘눅다’는 남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북한에서는 자주 사용된다. 이 외에도 ‘휴일에 일한 대신으로 얻는 휴가’라는 뜻을 지닌 ‘대휴’, ‘불법’이라는 뜻의 ‘비법’, ‘자신감’을 뜻하는 ‘자신심’의 경우 남한에서보다 북한에서 훨씬 사용 빈도가 높다(강보선, 2012).

이처럼 남북에서의 형태와 의미가 동일한 어휘 중에는 남북 어느 한 쪽에서 넓거나 좁은 사용역을 지니거나, 남북 어느 한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가 존재하는데, 이를 또한 남한에서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습해야 할 어휘임에 분명하다. 만약 이러한 사용 차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남한 사람의 말을 오해하거나 남한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4.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어휘

정경일(2001)에서는 북한이탈주민 90명을 대상으로 말하기·듣기 적응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북한이탈주민이 말하기와 듣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

설문 항목	응답	추가 응답
말하기 적응도	내 말을 남한 주민이 이해 못함: 41.6% 이해함: 16.9%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발음과 억양: 34.3%, 생소한 단어: 29.4%, 단어 의미 차이: 25.9%
듣기 적응도	나는 남한 주민의 말을 초기에 전혀, 거의 이해 못함: 44.8% 충분히 제법 이해함: 24.1%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생소한 단어: 33.9%, 발음과 억양: 27.4%, 단어 의미 차이: 19.6%

〈표 1〉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은 생소한 단어들이다. 문금현 외(2005)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생소한 단어’ 다른 의미, 다른 발음과 억양, 이해하지 못한 대화 상황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소한 단어’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사소통에서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정경일(2001), 문금현 외(2005)에서 언급된 ‘생소한 단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도 동일한 개념을 지닌 어휘가 존재하지만 남북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어휘이다. 앞서 기술한 ‘남북에서 형태가 다른 어휘’ 중 형태가 전혀 다른 어휘들이 주로 이 유형에 속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에도 동일한 개념을 지닌 어휘가 존재하고 그 형태도 남한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도 접해 본 적이 없는 어휘이다. 비록 동일한 형태와 의미를 지닌 단어가 북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그 단어를 듣거나 말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그 단어 또한 생소한 단어이며, 결국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어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에서는 해당 어휘가 북한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그 어휘를 알고 사용하였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북한에는 해당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생소한 단어이다. 이들 단어는 주로 남한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와 관련된 단어들로서 남북의 체제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쿼서비스, 재수생, 대리운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신용 카드, 웨딩 플래너 등

‘생소한 단어’의 세 유형 중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어휘’에 포함될 수 있는 단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이다. 첫 번째 유형의 단어는 ‘남북에서의 형태가 다른 어휘’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IV.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방법

III장에서 살펴본 유형에 속하는 남한 어휘는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중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 교육용 어휘 선정 방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용 어휘 선정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금까지 교육용 어휘 선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국립국어원 (2000), 문금현 외(2005), 문금현 외(2006), 문금현(2007), 신명선 외(2010) 등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과 방법론적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립국어원(2000)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대학 강단에서 40년을 가르친 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료 제공에 기반하고 있다. 즉 대학 교수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일간 신문과 텔레비전, 일상 대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모르는 남한 말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국립국어원, 2000 참조).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어휘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선정된 어휘 항목은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명선 외(2010)에서 지적하였듯이 국어 전문가가 아닌 한 사람에게 의존하여 어휘 목록을 선정하다 보니 군데군데 오류가 나타

나며, 개인적인 관점과 관심사가 많이 반영되어 보편적인 어휘 목록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금현 외(2005), 문금현 외(2006)는 일련의 연속된 연구로서 이들이 사용한 어휘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금현, 2007: 143-144).

문금현 외(2005)에서 쓰인 어휘 항목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지룡(1991)에서 기초 어휘 목록을 확인하고, 김평해(1993)에서 어휘 목록 선정 및 통계 처리 방법을 익힌 후 드라마 중심의 구어 텍스트에서 선정해 놓은 문금현(2000)의 부록 어휘 목록에서 1차적인 선정 작업을 하였다. 2차적으로는 조남호(2002)에서 현대국어 사용 빈도수를 확인하면서 3차 추가 작업을 하였다. 이후 국립국어원(1993)의 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문금현 외(2005)의 최종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문금현 외(2006)은 여기에다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국립국어원, 2003)에 나오는 목록 789개를 추가하고, 하나원의 교재(2003)에 나오는 '분야별 용어' 중에서 '가, 생활용어' 157개를 추가하여 중복되는 항목들을 제외한 총 705개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어휘를 북한이탈주민 100명에게 각 234개씩 조사하여 반응 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금현(2007)에서 어종별, 난이도별, 학습 단계별 어휘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용 어휘 목록을 체계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 연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어휘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문금현 외(2005), 문금현 외(2006), 문금현(2007)에서의 선정 방법으로는 이들 어휘가 교육용 어휘에 추가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외래어와 외국어 목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

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론은 한계가 있다.

학습 어휘 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정밀한 논의는 신명선 외(2010)에서 보인다. 신명선 외(2010)에서는 남한 정착 기간이 2년 미만인 북한이탈주민이 알아야 할 남한 어휘를 조사하기 위해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¹⁵ 즉, 선행 연구¹⁶와 연구자들의 주관적 조사¹⁷를 토대로 각 주제별 어휘 목록을 먼저 확보하고, 이 어휘 목록을 북한이탈주민들이 검증한 것이다.¹⁸ 검증 과정에서 남북한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어휘는 삭제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알아야 하지만 목록에서 빠져 있는 어휘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총 1,645개의 어휘를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괄호 안은 어휘의 개수).

- 공공 생활: 관공서(46), 교육(112), 금융(139), 사회(106), 의료(68), 직장(145)
- 문화 생활: 교통(104), 통신(97), 매체(79), 여가(129), 인간관계(73), 개념어/

15 신명선 외(2010)에서는 연역적 방법론과 귀납적 방법론을 함께 사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어휘를 조사하는 귀납적 조사 방법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선행 연구와 연구자의 주관적 조사만을 토대로 한 연역적 조사 방법은 선행 연구 결과가 빈약하고, 연구원의 주관이 개입하게 되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휘를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역적 방법으로 확보한 어휘 목록을 북한이탈주민이 귀납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연역과 귀납적 조사 방법이 지닐 수 있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6 국립국어원(2003), 국립국어원(2000), 문금현(2007), 정종남(2000), 하나원(2007), 오미정 외(2007), 김광해(2003) 등의 선행 연구를 의미한다.

17 연구자들이 해당 의사소통 및 주제 영역에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어휘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지, 관련 문서 등을 조사한 것을 의미한다.

18 검증의 절차는 일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검증단(남북 어휘에 대해 일반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으로 나누어 수차례 진행되었다. 일반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휘 목록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을 북한이탈주민 검증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를 재차 검증한 것이다(신명선 외, 2010 참조).

기호, 단위명/색상, 크기, 숫자(52/13/20)

- 개인 생활: 의복(69), 음식, 식당(148), 주거(94), 쇼핑(88), 화장품(37), 미용실(26)

신명선 외(2010)에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혼용하여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진일보하였으나, 검증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검증 능력에 따라 어휘 목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남한에 정착한 지 2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어휘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전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본고와는 차이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 선정의 방향

선행 연구들을 참조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휘 선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객관적 방법은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를 이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고, 주관적 방법은 객관적 방법에서 선정된 교육용 어휘를 북한이탈주민들이 검증하는 것과 객관적 방법으로는 선정될 수 없는 어휘를 경험에 근거해 찾아내어 교육용 어휘 목록에 추가하기 위한 방법이다.¹⁹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판단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2절에서는 교육용 어휘 선정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교육용 어휘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선정 방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9 문금현(2006)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어휘를 귀납적으로 찾아낼 것을 강조하였다.

1) 교육용 어휘 선정 시 고려 요소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II장에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목표, 성격, 대상에 맞게 어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교육용 어휘 선정 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남한에서의 사용 빈도이다.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단어를 의사소통 과정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하여 특수한 영역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남한에서 사람들은 여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여가를 누릴 만큼의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적게 하게 된다(신명선 외, 2012: 157 참조). 이는 여가 관련 어휘가 남한에서의 사용 빈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접촉하는 빈도가 현저히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즉 남한에서의 사용 빈도는 높지 않은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유형²⁰에 속하는 어휘 중 남한에서의 고빈도 어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북한이탈주민의 접촉 빈도도 고려하여 교육용 어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해당 남한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소통 장애의 정도는 단어마다 다를 것이다. 단어의 형태, 의미, 사용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단어가 있는 반면,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단어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각 유형에 속하는 남한 어휘 중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가 큰 어휘를 교육용 어휘에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남북 어휘의 의미, 사용의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많지 않고 단

20 III장에서 언급한 여러 유형을 의미한다(이하 동일).

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 발생하는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를 단어마다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어들의 의사소통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셋째는 학습의 난이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습해야 하는 남한 어휘 중에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어휘도 있지만 학습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어휘도 존재한다. 단순히 단어의 형태만 새로 익히면 되는 단어의 경우는 학습의 난이도가 매우 낮지만, 단어의 형태, 의미, 사용의 측면을 모두 새롭게 익혀야 하는 단어는 학습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습의 난이도가 낮은 어휘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낮은 어휘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어휘를 교육용 어휘에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의 난이도가 높은 단어의 경우에도 단어의 개념, 사용역 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난이도가 달리 느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단어마다 학습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에서는 남한에서의 사용 빈도,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학습의 난이도가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관적 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2) 교육용 어휘 선정의 방향

앞에서 제시한 고려 요소를 참고할 때 교육용 어휘의 선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이 함께 이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체로 교육용 어휘 선정의 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1) 남북 사전을 통한 어휘 비교

교육용 어휘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차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선행돼야 하는 작업은 남북 사전을 통한 어휘 비교이다. 남북 사전 비교를 통해 남북에서 형태가 다른 단어,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단어,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단

어 등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용 어휘의 목록에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은 남북 사전을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한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용 어휘 선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 북한의 실제 언어 자료 분석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해서는 남북 사전 비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는 세 가지 점에서 그러한데, 첫째로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단어의 경우 사전 비교를 통해서 개념적 의미가 다른 단어는 확인할 수 있으나 연상적 의미가 다른 단어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둘째, 사전 비교로는 남북에서의 사용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사전에는 사용 범위와 사용 빈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어휘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 중 상당수는 외국어, 신어, 유행어 등인데, 이들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²¹

남북 사전 비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 어휘의 의미 · 사용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강보선(2012)에서는 남북 동형동의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단어를 대상으로 남북 사전 비교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의미 · 사용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 바가 있다.

- ① 북한의 문학 작품, 교과서, 영화, 신문, 잡지, 북한이탈주민이 쓴 글 등을 직접 접하면서 남한에서의 쓰임과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을 직관적으로 추려 내었다.
- ② 이들 어휘 중 남북 사전의 뜻풀이 비교를 통해서도 의미 · 사용의 차이를 쉽

21 사전을 통해서는 구(句)를 비교할 수 없는 것도 사전 비교의 한계이다. 예컨대 '일없다'의 경우는 남북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인데(남한에서는 '필요 없다'의 의미, 북한에서는 '괜찮다'의 의미), 북한에서는 단어가 아니라 구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북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즉 '일없다'는 북한 사전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게 파악할 수 있는 어휘는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③ 사전 뜻풀이 비교를 통해서는 의미·사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단어 사용 용례를 통해 남북에서의 쓰임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겨레말큰사전에서 구축한 남북 소설 말뭉치를 활용하여 남북에서의 의미·사용 차이를 확인하였다.
- ④ 말뭉치를 통해서도 파악하기 어렵거나, 의미·사용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어휘들은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10명의 자문을 받아 남북에서의 의미·사용 차이를 검증하였다.

앞으로 북한 말뭉치가 좀 더 대량으로 구축되고 각 단어에 대하여 북한에서의 실제 사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검증단의 신뢰도를 높인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남북 동형이의어, 남북 이형동의어 등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보된 어휘를 대상으로 남한에서의 사용빈도와 학습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경험 사례 수집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주관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형태, 의미, 사용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단어의 의미를 몰라 어려움을 겪은 실제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 방법으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주관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을 겪은 어휘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어려움을 안겨 줄 어휘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어휘를 모두 수집할 수만 있다면 이들 어휘는 교육용 어휘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일례로 한 북한이탈주민은 '밀다'로 인해 다음과 같이 큰 곤란을 겪었는데, 이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도

‘밀다’로 인해 곤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 A는 주차 문제로 인해 노인 B와 실랑이를 하게 됐다. 당시 B는 만취한 상태에서 A의 먹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A가 B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B가 실수로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뇌진탕을 일으켰다. B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만취로 인해 술이 깔 때까지 수술을 못하고 있다가 이내 사망하고 말았다. A는 경찰서에서 “당신이 B를 밀었습니까?”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나중에 남한에서는 ‘밀다’와 ‘뿌리치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안 A는 재판 과정에서 B를 민 것이 아니라 뿌리친 것이라고 다시 진술하였다. 함경도가 고향인 A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밀다’를 ‘뿌리치다’는 의미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밀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하였다.²²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같이 남북 어휘 차이로 인해 크거나 작은 곤란을 겪은 경험들을 다수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게 만든 어휘를 따로 메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어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곤란을 끼친 어휘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이를 교육용 어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²³

22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간략히 재구성한 것이다. 함경도에서 ‘밀다’가 ‘뿌리치다’의 의미로 실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10명에게 물어본 결과 A와 같이 ‘뿌리치다’의 의미로 ‘밀다’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꽤 반수였음을 밝혀 둔다.

23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가나다 전화’와 같은 성격의 상담 기관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사례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언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게 하고 기관에서는 이를 잘 기록하고 축적해 둔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용 어휘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V. 나오며

우리는 남북의 적대적인 대결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에 국어 교육 또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어 교육이 되어야 하며,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여 민족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준비하는 교과가 되어야 한다.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언어 적응을 돋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은 국어 교육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통일을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 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실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용 어휘의 유형과 선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용 어휘의 유형은 1) 남북에서 형태가 다른 단어, 2)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단어, 3) 남북에서 사용이 다른 단어, 4)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단어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방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교육용 어휘의 선정은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교육용 어휘 선정 시 남한에서의 사용 빈도,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 학습의 난이도가 특히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해서는 남북 사전을 통한 어휘 비교, 북한의 실제 언어 자료 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경험 사례 수집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체 교육용 어휘가 확실히 선정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게 재분류, 재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교육용 어휘,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별 교육용 어휘 등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용 어휘 목록이 하나씩 마련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선정 작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형

태, 의미, 사용이 변화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워하는 어휘가 외래어, 외국어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목록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3. 6. 30. 투고되었으며, 2013. 7. 8. 심사가 시작되어 2013.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강보선(2009), 「국어교육에서의 북한 어휘 교육 연구」, 『국어교육』 제45집, 국어교육학회.

_____ (2011),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고찰—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2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_____ (2012), 「남북한 동형동의어의 의미 · 용법 차이 연구,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 미발간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1999),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0),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국립국어원.

_____ (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_____ (2007),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한민족 언어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

_____ (2008), 「국어문화학교 특별과정 개발 및 교안 제작— 새터민을 위한 국어교육과정」,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권순희 외(2011), 『새터민 어휘 학습 실물 교재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_____ (2012),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어휘 1~3』, 하우.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_____ (1997), 「어휘력과 어휘력의 평가」, 『선청어문』 25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김석향(2006), 「새터민의 언어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김영길 외(2001), 「독일 통일 이후의 언어통합과정 연구」, 『독일어문학』 15, 한국독일어문화학회.

김유경(2012),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김현식(2007),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김영사.

립일(2009), 『평양보다 서울이』, 맑은 소리.

문금현 외(2005), 『새터민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_____ (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문금현(2007),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신명선 · 권순희(2011),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8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신명선 외(2010),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_____ (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박이정.

이기준 외(2001),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대출판부.

이수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한국청소년학회.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 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_____ (1992), 『국어의미론』, 텁출판사.

정경일(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정동환(2002), 「통일 시대의 외래어 표기법」, 『한말연구』 11, 한말연구학.

정종남(2000),『북한주민이 알아야 할 남한 어휘 3300개』, 종로서적.

조정아·정진경(2006),「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통일정책연구』15(2), 통일연구원.

하나원(2003),『새로운 언어생활』, 통일부 하나원.

_____(2011),『새로운 언어생활』, 통일부 하나원.

홍사만(2007),『국어 의미 분석론』, 한국문화사.

Leech, G.(1981), *Semantics*, Harmondsworth:Penguin Books.

Patrick Stevenson(2006), *Language and German Dis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통일부 통계 자료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

req?idx=PG0000000365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강보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을 위하여 교육용 어휘의 유형과 선정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특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목표는 남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은 국어 교육적 성격과 한국어 교육적 성격을 모두 지닌다. 셋째 교육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교육용 어휘를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육용 어휘의 유형은 1) 남북에서 형태가 다른 어휘, 2)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어휘, 3) 남북에서 사용이 다른 어휘, 4)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어휘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교육용 어휘 선정 시 남한에서의 사용 빈도,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 학습의 난이도가 특히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해서는 남북 사전을 통한 어휘 비교, 북한의 실제 언어 자료 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경험 사례 수집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핵심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 교육용 어휘의 유형,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방법

ABSTRACT

A Study on the type and selection method of vocabulary for teaching for North Korean Refugees

Kang, Bo-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 and the selection method of vocabulary for teaching for North Korean Refugees. For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3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purpose, the characteristic and the subject of vocabulary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type of vocabulary for teaching is 1) vocabulary with different form in the South and North, 2) vocabulary with different meaning in the South and North, 3) vocabulary with different use in the South and North, 4) vocabulary which only use in South Korea.

This study emphasized that it is need to use objective method and subjective method for selection vocabulary for teaching. When we select vocabulary for teaching, it is need to consider of frequency of use in South Korea, the degree of communication disorder and education difficulty.

This study emphasized that lexical parallels using dictionary of the South and North, analysis of real language material of North Korea and collection of subjective experience case of North Korean Refugees for selection vocabulary for teaching.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vocabulary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type of vocabulary for teaching, the selection method of vocabulary for teaching.